



마음까지 보듬는 손길 재활·돌봄 행복한 동행



동행재활요양병원
DongHaeng Convalescent Hospital



김정민 동행재활요양병원 의료원장

“내 집 같은 편안함 제공 심혈 믿음 가는 의료 서비스 최선”

“바쁘다는 핑계로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고 정감있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동행재활요양병원 김정민 의료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의료진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는 병원, 자신의 마음 달래주고 어려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온 환자 대다수는 아무래도 집보다 병원이 불편할 수 있다”며 “병원에서 지내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나 불편함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했다.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위축돼 불편함이 있어도 차마 말을 못할 때가 있지요. 그런 부분까지 보듬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보고자 합니다.”
김 원장은 “직접 다가가 말을 건네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풀어놓으실 때가 많다”며 “이렇게 다가가면 환자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끼며 위안을 얻고는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이 위안을 얻고 희망을 갖게 돼 하루빨리 쾌차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런 김 원장의 세심함과 따스한 마음은 그가 걸어온 길을 봐도 진실됨을 알 수 있다. 그는 최근 대한직접자로부터 헌혈 100회를 달성한 이에게 주어지는 ‘명예장’ 표창을 받았다.
누군가를 돕고 싶어 첫 헌혈을 시작하게 됐다는 그는 100회가 넘게 헌혈을 하면서도 필요한 이들에게 모두 헌혈증을 기부하기도 했다. 꾸준한 헌혈을 위해 식단조절을 하고, 술과 담배 등 몸에 해로운 것은 일체 하지 않을 정도로 진심을 다하고 있다.
김 원장은 재활치료를 할 때도 결코 쉽지 않지만 환자들에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하기 위한 경험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어렵고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회복을 돕고자 한다.
“누가와도 마음 편하게 믿고 올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자 합니다. 의료진 모두가 환자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줄 수 있도록.”
김정민 원장은 “주위의 누군가 힘들어할 때 베푸는 작은 배려가 행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몸뿐 아니라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환우와 보호자, 직원 모두가 함께 행복한 병원이자 한 걸음 걷는 동반자로서 ‘동행’한다는 신념이 확고한 병원이 있다. 광주 동행재활요양병원은 그 이름에 걸맞게 동행의 가치를 고민하며 지역의 의료 선진화를 이끌어가며 신뢰를 굳혀가고 있다.
◇국내 최고 수준 의료시스템=2019년 6월 광주시 북구 신안동 광주역 앞에 개원한 동행재활요양병원은 올해 4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국내 최고 수준 의료장비를 도입해 우수한 의료시스템을 구축, 몸 기능을 회복하고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펼쳐왔다.
해마다 전문 의료진을 강화해오고 있는 동행재활요양병원은 류기준 대표원장(한방신경정신과전문)과 한의학박사 최태진 병원장을 비롯해 재활의학과전문의 김정민 원장, 외과전문의 박철홍 원장 등 전문의 7명, 한의사 6명 등 13명의 전문 의료진이 함께 한다. 한방과와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재활의학과, 외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 가능하다.
특히 양·한방 협진진료를 통해 치료시너지 효과를 추구한다. 실질적인 양·한방 협진을 통해 정확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져 효과를 극대화했다.
한의학박사와 한의전문의로 구성된 한의사 의료진을 통해 통증 완화와 면역력 회복, 기력 회복 등 환자 개개인의 한방체질을 분석하고, 이후 침·약침요법, 부항요법, 한방뜸요법, 체질한약 탕약처방 등 다양한 치료방법으로 개개인의 건강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여기에 개원 당시 78실 296병상에서 104실 409병상 규모로 거듭 성장했다. 지하 5층-지상 12층 연면적 1만7268㎡, 총 175대에 달하는 주차 공간은 물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격리병실도 갖췄다.
개인 맞춤형 VIP 병동(13실 53병상)도 운영된다. 각종 가전제품과 개인용 세탁장, 휴게·면회 공간 등 ‘도심 속 호텔 같은 병원’을 표방하고 있다. 병실은 1인·2인·3인·6인

양·한방 의료진·치료사 50여명 상주
통증 완화·기력 회복·재활 치료
104실 409병상...VIP 병실도 갖춰
지역 어르신·취약계층 무료 진료
이웃 돕기·헌혈 등 사회공헌도 활발

실 등 다양하며, 전문화된 간병인력이 24시간 돌봄을 펼친다.
광주 도심이 원히 내려다보이는 11층 ‘하늘재활센터’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전담 치료사 등 50여명의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환자들의 회복을 돕는다.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재활프로그램 등 최고 수준 의료장비를 도입해 체계적인 재활치료 뿐 아니라 신체장애를 극복하는데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경사침대, 기립책상 등 매트 운동부터 워킹레일을 이용한 보행훈련까지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 수술을 겪은 환자에게는 도수치료, 복합운동치료를 통해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함께 웃으며 성장하는 행복한 동행=동행재활요양병원은 진정한 가치는 따로 있다. 행복을 함께하기 위한 마음 가짐이다.
광주시 북구에서 주관하는 ‘일상회복지원사업’과 관련해 진행되는 ‘건강마음돌봄지원서비스’에 참여하면서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에 성심껏 나서고 있다. 지난해부터 사업에 참여해 매주 1회 진행하던 것을 올 8월부터 주 4회로 확대했다. 복수 소재 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돕고 있다. 그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말동무도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오는 10월에는 ‘아름다운 가게’와 연계한 이웃돕기 행사

도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밖에 감염병 확산으로 혈액 수급이 어려워지자 임직원들은 발 벗고 나서 혈액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때를 가리지 않고 사랑나눔 헌혈 행사를 열고 병원 입구에 마련된 적십자사 이동식 헌혈차량에서 단체 헌혈을 실시하는 등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또 남구 서동 ‘사랑의 식당’을 찾아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식사 제공 및 배식 봉사는 물론, 최근에는 ‘희망 나눔캠페인’에 동참해 생필품을 후원해오고 있다.
앞서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가족을 자주 만나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도 개최해왔다.
각종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에서도 연말 직원들이 직접 감지를 담가 환자들에게 감장 밥상을 대접하는 ‘감장데이’를 진행, 성탄절을 맞아 고령 환자들을 찾아가는 ‘올레 산타’ 이벤트도 마련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봄여방 굶는 데이’도 열고, 이외 정기적으로 ‘어르신 생신 잔치’와 ‘이미용하는 날’, ‘장수사진 촬영’ 등 행사를 여는 등 환자와 지역사회를 위해 힘 없이 고민하고 있다. ‘함께하며 행복하자’는 ‘동행’의 마음을 되새기는 것이다.
특히 임직원들 역시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봉사활동을 벌이고 한국생명사랑재단과 장애인체육회에 후원을 이어나가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행’의 길을 걷고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동행재활요양병원 임직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난에 도움을 주고자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동행재활요양병원 전경.